정보

Carl Nielsen: Symphony No. 3, Op. 27 “Sinfonia espansiva”
작곡가: Carl Nielsen (1865–1931)
작품명: Symphony No. 3, Op. 27 “Sinfonia espansiva”
장르: 관현악과 무언 성악을 위한 4악장 교향곡
작곡 시기: 1910–1911년
초연: 1912년 2월 28일, 코펜하겐 Odd Fellow Palæet, Carl Nielsen 지휘
IMSLP: https://imslp.org/wiki/Symphony_No.3,Op.27(Nielsen,_Carl)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Symphony_No.3(Nielsen)

Carl Nielsen의 Symphony No. 3은 Op. 27, FS 60, CNW 27로도 불리는 네 악장 교향곡이다 . 첫 악장 Allegro espansivo, 목가적인 Andante pastorale, 움직임이 많은 Allegretto un poco, 힘찬 Finale: Allegro 가 이어진다. 제 2악장 끝에는 가사가 없는 소프라노와 바리톤이 들어가며, 두 성악 파트가 작품의 독특한 음향을 만든다. “Sinfonia espansiva”라는 이름은 특정 줄거리를 붙이기보다 음악이 안쪽의 에너지를 넓은 공간으로 펼치는 성격을 가리킨다.

개요
니엘센은 1910년 초 이 교향곡을 구상하고 제 1악장을 먼저 완성했다. 연극 음악과 왕립극장 업무, 건강 문제로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1910년 가을부터 이듬해 겨울까지 나머지 악장을 마무리했다 . 초연은 1912년 2월 28일 코펜하겐에서 작곡가 자신의 지휘로 열렸고, 소프라노 Emilie Ulrich와 바리톤 Albert Høeberg가 제 2악장의 무언 성악을 맡았다. 이듬해 C. F. Kahnt Nachfolger가 Leipzig에서 악보와 파트를 출판했다.

니엘센은 1931년 프로그램 노트에서 제 1악장을 생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뻗어 나가는 음악, 제 2악장을 평화로운 목가, 제 3악장을 선과 악이 아직 결론에 이르지 않은 상태, 피날레를 노동과 일상의 건강한 활동을 기리는 음악으로 설명했다. 이 말은 작곡가가 훗날 작품을 회고한 언어이며, 교향곡에 고정된 줄거리나 전쟁

표제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

별칭과 작품의 위치

“Sinfonia espansiva”라는 명칭은 1912년 4월 28일 암스테르담 Concertgebouw 공연에서 사용된 기록이 있다. 니엘센의 프로그램 언어와 후대 해설은 네 악장을 하나의 표현적 흐름으로 연결하지만 , 각 악장은 고유한 형식과 음색을 갖춘다. 고전 교향곡의 네 악장 구조, 프랑스와 러시아 음악에서 이어진 관현악 감각, 덴마크 작곡가 특유의 선명한 리듬이 한 작품 안에서 만난다.

출판 정보와 자료

초판은 1913년 C. F. Kahnt Nachfolger가 출판했다. 현재 연주와 연구에는 왕립도서관의 Carl Nielsen Edition 비평판과 Edition Wilhelm Hansen의 연구용 악보가 함께 사용된다. 비평판은 작곡가가 마지막으로
승인한 악보를 중심으로 하면서, 자필 초안과 초판 사이의 중요한 차이를 비평 보고서에 기록한다.

소요 시간

전곡은 연주에 따라 약 35–38분이다. Sakari Oramo의 BIS 녹음은 37분 48초이며, 제 1악장 11분 23초, 제 2 악장 9분 17초, 제 3악장 6분 41초, 제 4악장 10분 10초다. Alan Gilbert와 New York Philharmonic의 실황 녹음은 37분 15초로 표시된다. 제 2악장의 무언 성악과 반복, 템포 선택에 따라 전체 길이가 달라진다.

편성

목관: 플루트 3(제 3플루트는 피콜로 겸함), 오보에 3(제 3오보에는 잉글리시 호른 겸함), 클라리넷
3, 바순 3(제 3바순은 콘트라바순 겸함)
금관: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3, 튜바
타악기와 현악: 팀파니, 현악 5부
성악: 제 2악장의 소프라노와 바리톤 독창, 모두 가사가 없는 vocalise

두 성악가는 제 2악장의 마지막 부분에만 등장한다. 가수를 배치하지 않는 공연에서는 비평판의 규정에 따라 소프라노 파트를 제 4클라리넷으로 , 바리톤 파트를 트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선택은 별도의 대체 편성이며, 두 성악 파트에 가사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악장별 구성

I. Allegro espansivo

첫 악장은 강한 유니즌과 짧은 동기가 큰 에너지로 출발한다. 여러 성부가 동기를 나누어 모방하면서 선율이 길어지고, 급격한 화성 이동 속에서도 중심음이 되돌아온다 . Steven Stucky는 이 악장을 명료한 소나타

형식으로 설명하며, 첫 주제의 대위적 묶음과 먼 조성에서 시작하는 두 번째 주제가 발전부에서 다시 얽힌다고 분석한다. 니엘센이 말한 ‘확장 ’은 음량만 커지는 일이 아니라, 작은 동기가 관현악 전체로 퍼지는 과정에 가깝다.

II. Andante pastorale

느린 악장은 독주 호른의 긴 선율과 낮은 현의 반음계 반주로 시작한다. 목관은 선율을 이어받거나 짧은 응답을 보내며, 첫 부분의 음악이 변형되어 돌아오는 A–B(A′)–B′–A″ 구조를 만든다. 마지막에는 가사가 없는
소프라노와 바리톤이 관현악 위에 놓인다. 두 목소리는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고, 악장의 목가적인 공간에
인간의 숨결을 더한다.

후대 해설은 이 악장의 선율과 음향을 니엘센의 고향인 Funen의 풍경과 연결한다. 이 이미지는 프로그램
노트와 음반 해설에 근거한 해석이며, 특정 풍경을 묘사하는 표제나 장면 지시로 읽을 필요는 없다.

III. Allegretto un poco

세 번째 악장은 가벼운 스케르초와 왈츠의 움직임을 불안정한 흐름 안에 놓는다. 니엘센의 프로그램 노트가 말한 ‘선과 악의 미해결 ’은 구체적인 인물이나 사건이 아니라, 악장 안에서 대조되는 리듬과 음색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중간 구간에서는 금관과 타악기가 흐름을 거칠게 바꾸고, 저음 현의 피치카토와 반음계적 음 배열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든다.

이 악장에는 12음렬에 가까운 피치카토 재료가 사용되지만 , 작품 전체가 엄격한 12음기법으로 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정 음 배열은 음색과 리듬을 조직하는 재료로 기능하며, 뒤의 피날레가 이를 더 넓은 선율과 추진력으로 정리한다.

IV. Finale: Allegro

피날레는 넓게 펼쳐지는 선율과 힘찬 리듬으로 앞의 악장들을 묶는다. 니엘센은 이 악장을 일상의 노동과
건강한 활동을 기리는 음악으로 설명했고, 후대 해설은 시작부터 나타나는 큰 선율이 전곡의 에너지를
종합한다고 본다. 주제는 여러 악기군을 거치면서 모습을 바꾸고, 금관과 현악이 번갈아 추진력을 보탠다. 마지막에는 선율과 리듬이 한 방향으로 모이며 확신에 찬 종지에 이른다.

판본과 연주

Carl Nielsen Edition은 제 2악장의 무언 성악과 가수 부재 시의 대체 파트를 명시한다. 이 판본을
사용하더라도 성악을 실제로 배치할지, 제 4클라리넷과 트롬본으로 대체할지에 따라 악장의 색채가 달라진다. 또한 제 1악장의 큰 단절과 제 3악장의 흐름을 얼마나 유연하게 연결하는지에 따라 전곡의 표현적 아치가 달라진다.

Herbert Blomstedt의 1988년 San Francisco Symphony 녹음에 대해 Robert Layton은 제 1악장의 집중과
제 3번 전체의 깊이, 피날레의 흐름을 높이 평가했다. 제 2악장의 두 성악이 만드는 몽환적인 효과와 Allegretto 종결의 느려짐에는 개인적인 유보도 남겼다. Alan Gilbert의 New York Philharmonic 실황에 대해 Andrew Mellor와 Dominy Clements는 내성부와 대위적 관계를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 빠른 속도만으로 흥분을
만들지 않고 제 2악장의 평온과 제 1·4악장의 추진력을 함께 조절한다고 평했다.

주요 레코딩

Herbert Blomstedt / San Francisco Symphony (1988년 녹음, Decca): 소프라노
Nancy Wait Kromm과 바리톤 Kevin McMillan이 참여한 녹음이다. Robert Layton은 제 1악장의
집중, 제 3번의 깊이, 제 2악장 무언 성악의 몽환적 효과를 언급한다.
Leonard Bernstein / Royal Danish Orchestra (1965년 녹음): 덴마크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역사적 녹음으로, 니엘센 교향곡 음반사의 초기 국제 기록에 속한다. 녹음 개관 자료는 강한
생명력과 애정 어린 접근을 언급하면서 제 2악장 성악과 피날레에는 다른 견해도 덧붙인다.
Alan Gilbert / New York Philharmonic (2011·2012년 실황, Dacapo SACD
6220623): 제 3번의 전곡 시간은 37분 15초다. BBC Music과 MusicWeb의 평가는 내성부, 대위,
제 2악장 무언 성악, 제 3악장의 다층적 흐름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주요 자료

Royal Library, Catalogue of Carl Nielsen’s Works CNW 27: 작곡 과정, 초연 ·출판, 공연 목록,
작품 자료 계보.

Carl Nielsen Edition, Symphony No. 3: 비평판의 편집 원칙, 편성, 무언 성악과 대체 파트.

Wise Music Classical, Sinfonia espansiva: 니엘센의 1931년 프로그램 노트.

Carl Nielsen Studies, Daniel Grimley: 별칭, 에너지, 현대성, 형식에 관한 음악학적 분석.

BIS 2048 북클릿: Sakari Oramo 녹음의 악장별 시간과 프로그램 해설.

Gramophone·BBC Music·MusicWeb 녹음 비평, BBC Music, MusicWeb International: Blomstedt, Bernstein, Gilbert 녹음의 연주 ·음향 평가.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7:34 UTC by 안준영
Updated 2026-10-04 10:07:34 UTC by 안준영